

##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수경(尹秀璟)\*\*

이윤희(李尹希)\*\*\*

임소현(任昭賢)\*\*\*\*

김은영(金恩映)\*\*\*\*\*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정, 교원 및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차원의 특성별 변수들이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자치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원특성에서는 교사의 학업성취압력이 강할수록, 교사의 열의가 높을수록,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의 경우 학교폭력 정도가 심할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개인특성, 가정특성뿐만 아니라 교원 및 학교의 특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학생, 공동체의식,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 이 논문은 제1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보완, 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공동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rockett & Crouter, 2014).

청소년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및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의 양상은 매우 다양해지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수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에 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하며,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 내현화 문제와 폭력행동, 범법행위 등 외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제안하였다(우유라, 노충래, 2014; 장혜림, 정익중, 2013; 한대동, 오경희, 2013).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소년기가 공동체 속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박영, 허원구, 2017).

이처럼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은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2009년 제2차 국제시민교육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은 38개국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학교내외의 공동체 참여,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시민기관 신뢰 등과 같은 정서행동 영역은 조사 참여국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 지식수준과 인식 및 참여 수준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 외, 2015).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 및 학교의 특성에 조금 더 집중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성별 특성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또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계, 학생-교사와의 관계 등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성훈, 2015;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 김태한, 2017).

한편,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큰 변화는 가정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학교급의 전환과 맞물려 일어나게 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에는 학생들이 특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중학교 초년생들은 초등학교

와는 다른 일과운영과 생활규제에 따른 압박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승희, 이미숙,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급 전환기와 맞물린 청소년기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 가정특성, 교원특성, 학교특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별 변수들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단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성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동체의식의 개념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체(共同體)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실시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인간들이 함께 살고, 함께 소속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공동체감정이다. 즉, 공동체의 기초는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감정(community sentiment)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개념은 사회학의 기초개념으로서 명백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확립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공동체의식은 지리적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같이 지니고 있고, 또한 지녀야 할 감정이나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공감대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개념이 지역성 중심에서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유대 등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의식도 지역적 특성을 탈피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공동체의식의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포함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옥순, 2006). 공동체의식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소속감을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혜영(1997)은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성원이 성장해 가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획득되고 학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박가나(2009)는 공동체의 식이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집단의식이고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인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재숙(2010)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을 공동체의식으로 보았다.

공동체가 대체적으로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과 의사소통, 정서적 결속감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는 만큼 공동체의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 정의되고 있다. Sarason(1974)의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이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관계망을 인식하는 것이고,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를 지리적, 지역적 특징과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결속감을 인식하고 구성원 간의 욕구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학자들이 정리한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이 조직을 이루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공동체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향후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시민성과 사회참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동체의식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써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 발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박재숙, 2010).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 과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시민성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청소년이 갖는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자치활동 참여, 학교 내에서의 출선수범 등의 의미있는 행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고(박가나, 2009),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청소년기에 있어 공동체의식 함양은 청소년의 발달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다(김혜진, 2014).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조사한 ‘참여의식 및 타인배려’를 공동체의식으로 규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으로는 학생의 성별, 체험활동, 교우관계 등이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성훈(2015)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 가정, 학교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혜진(2014)과 박현정 외(2015)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가영, 장유미(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적환경변수인 건강인식정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또래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박현정 외(2015) 연구는 교우관계가 공동체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우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연습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발달할 수 있고,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또한 김원태(2011)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대부분의 사회 경험이 친구들과과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만큼 친구들과의 민주적 경험이 공동체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송연주 외(2015)는 공동체 안에서 또래에착과 같은 정서적인 유대감은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공동의 노력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았다.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관우, 남진열(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자기계발활동, 문화예술활동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은경, 김미강(2013)은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교류·봉사·환경보존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참여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강가영, 장유미(2013)의 연구 결과 역시 학생들의 종교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이 공동체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급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도 공동체의식 형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태, 2001; 허인숙, 이정현, 2004). 국외연구에서도 교내외 사회 참여활동 또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동아리와 같은 비사회 참여 활동 모두 성인기의 사회참여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Glanville, 1999; Youniss et al., 1999; Zaff et al., 2003).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성취압력 등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태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민 행동의 양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현정 외(2015) 연구 결과 역시 가구소득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연간가구소득)가 공동체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는 더 넓은 범위의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유난숙(2015)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조적효과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현정 외(2015)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도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연 외(2011)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동윤정 외(2012) 연구에서도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 학급풍토 등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2010)의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추이 분석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며, 학교적응 만족도와 함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미섭(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 외(2015)의 연구 결과 역시 교사관계, 학교규칙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상희(2005)의 공동체의식과 학급풍토에 관한 연구는 공부만 지향하여 급우 간 경쟁을 추구하는 학급보다 서로 활동하고 어울리는 학급에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개인특성, 가정특성, 교원특성, 학교특성이 공동체의식의 중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2013’은 2013년 242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등에 대해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김양분 외, 2016).

여기서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특성, 가정특성, 교원특성, 학교특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별 변수들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초등학교 5학년)에서 2016년(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관측치가 모두 있는 학생 3,201명의 자료를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는 균형패널 자료(민인식, 최필선, 2013)로 구조화하여 12,804개의 사례수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수 설명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들을 개인특성, 가정특성, 교원특성, 학교특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개인특성에는 성별,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자치활동 여부, 휴대전화중독,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가정특성에는 아버지 학력, 형제/자매 수, 부모-자녀 관계 등을 포함하였으며, 교원특성에는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교사의 열의,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였다. 학교특성에는 학급 수, 학교폭력을 포함하였다.

공동체 의식, 교우관계 등 정의적 영역의 변수의 경우, 이들 영역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의 측정지표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김태일, 2003).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학생들이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또 시간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변수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은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4차년도에 모두 측정한 참여의식 및 타인배려 관련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lt;표 1&gt; 변수 설명

변 수		설 명	조사 차수	
종 속	공동체의식	각 연도별 공동체의식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1-4차	
독 립 변 수	개인 (6개)	성별	0=남자(기준), 1=여자	1차
		교우관계	각 연도별 교우관계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2차 18번, 3차 16번, 4차 17번 문항) -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4차
	학업 스트레스	각 연도별 학업스트레스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21번(5~8), 3차 19번(5~8), 4차 20번(5~8)문항) -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소리에 짜증이 난다 -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 공부 생각만 하면 소화가 잘 안된다 - 앞으로 몇 년을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1-4차	
	자치활동 여부	학생회 및 학급활동 경험 없음=0, 있음=1 (학생: 1,2차 22~23번, 3차 20번, 4차 21번 문항)	1-4차	
	휴대전화 중독	각 연도별 휴대전화 중독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30번, 3차 36번, 4차 37번 문항) -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휴대전화로 한참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1-4차	
	봉사활동	각 연도별 봉사활동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26번, 3차, 4차 28번 문항) -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 -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1-4차	
가정 (3개)	부학력	초=6 중=9 고=12 전문대=14 대=16 석사=18 박사=21(연속변수)	1차	
	형제/ 자매 수	형제자매수(연속변수)	1차	



변수	설명	조사차수
부모-자녀관계	각 연도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활동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38번(5~8), 3차 42번(1~5), 4차 43번(1~5) 문항) -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물어보신다 - 사소한 것도 여쭙어보면 잘 듣고 응답해 주신다 - 때때로 놀이나 게임을 함께 하신다 - 나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신다	1-4차
교원 (3개)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각 연도별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15번, 3차 13번, 4차 14번 문항) -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신다 - 시험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에 들 것을 강조하신다 -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 오도록 강조하신다 - 숙제 검사를 철저하게 하신다	1-4차
교사 열의	각 연도별 교사의 열의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차 16번, 2차 17번, 3차 14번, 4차 15번 문항) -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다 -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1-4차
교사-학생 상호작용	각 연도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3차 12번(5~8), 2, 4차 13번(5~8) 문항) - 칭찬을 자주 해주시어 더욱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해주신다 - 조금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도전하도록 격려해주신다 - 나에게 발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신다	1-4차
학교 (2개)	학급 수 학급수(연속변수)	1-4차
	학교폭력 각 연도별 학교 내 학교폭력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 (학생: 1, 2차 19번, 3차 17번, 4차 18번 문항) - 학생들 간에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 - 학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 - 특정 학생을 고의로 따돌리는 일(왕따)이 일어난다. - 욕설을 쓰는 학생이 많다	1-4차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 가정특성, 교원특성, 학교특성 요인들이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한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인 기간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정시점이나 전체 기간의 평균값에 의한 횡단면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한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Static)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지만 패널자료에서는 개인이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자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기본적인 패널자료 분석에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관찰할 수 없는 개체효과를 고유한 값으로 포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개체 간에 차이가 어떤 분포로부터 임의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시점이 다른 동일 개체의 관찰치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분석에서 각 연도별로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변수를 제거해주며 그에 따른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에 대한 추정을 편의가 없이 수행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연도별 변하지 않는 변수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성별 등의 효과는 추정하지 못한다. 반면 연도별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변수가 차분되는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오차항(error term)과 상관관계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장점이 있다(송경오, 이광현, 2010). 다만, 오차항이 존재할 경우, 오차항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여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더 타당한 모형을 검증해야 하는데, 보통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활용한다. 하우스만 검증의 영가설은  $u_i$ 와  $x_{it}$ 의 공분산이 0이라는 것, 즉  $u_i$ 와  $x_{it}$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고정효과모형을, 기각하지 않게 되면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또 시간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원오차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u_i$ 를 모수로 간주하면 이원 고정효과모형이 되고, 확률변수로 간주하면 이원확률효과모형이 된다. 실제 분석에서 시간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은 시간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최충익, 2008; 김성훈, 2015). 본 연구에서도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자료 구축 및 통계 분석을 위해서 STATA 13.0을 활용하였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v_t + \epsilon_{it}$$

( $Y$ =종속변수,  $i$ =개체,  $t$ =시간,  $\alpha$ =절편,  $\beta$ =계수,  $x_{it}$ =독립변수,  $u_i$ =개체의 오차,  $v_t$ =시간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epsilon_{it}$ =확률적 오차)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2>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도별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표집된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연도별로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휴대전화 중독, 봉사활동, 부모-자녀관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 자치활동에 대한 경험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때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요인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동체 의식은 연도별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자치활동 여부, 휴대전화 중독, 봉사활동 측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관계,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교사-학생 상호작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폭력 인식 정도와 교사 열의는 성별에 따른 특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기술통계(n=3,201)

변 수	초5(2013년)		초6(2014년)		중1(2015년)		중2(2016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동체의식	3.82	0.64	3.85	0.62	3.87	0.57	3.89	0.58	
개인 (6개)	성별(여)	0.57	0.49						
	교우관계	3.82	0.81	3.95	0.75	3.99	0.71	4.01	0.71
	학업스트레스	2.38	0.99	2.50	1.00	2.70	0.97	2.77	0.98
	자치활동 여부	0.36	0.48	0.34	0.47	0.13	0.34	0.18	0.38
	휴대전화 중독	1.88	0.85	2.12	0.91	2.33	0.91	2.34	0.93
	봉사활동	3.51	0.90	3.50	0.88	3.65	0.84	3.65	0.81
가정 (3개)	부학력	14.13	2.32						
	형제/자매 수	1.19	0.75						
	부모-자녀관계	3.50	0.88	3.36	0.84	3.56	0.86	3.57	0.85

변 수	초5(2013년)		초6(2014년)		중1(2015년)		중2(2016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원 (3개)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3.42	0.72	3.35	0.71	3.38	0.65	3.45	0.64
	교사 열의	4.24	0.68	4.22	0.68	4.16	0.65	4.11	0.69
	교사-학생 상호작용	3.89	0.86	3.81	0.87	3.64	0.80	3.60	0.80
학교 (2)	학급 수	30.94	11.87	30.59	11.88	23.31	8.17	22.59	8.01
	학교폭력	2.46	0.87	2.39	0.81	2.40	0.80	2.43	0.80

&lt;표 3&gt; 기술통계(남학생, n=1,363)

변 수	초5(2013년)		초6(2014년)		중1(2015년)		중2(2016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동체의식	3.80	0.66	3.85	0.65	3.86	0.59	3.88	0.61	
개인 (5개)	교우관계	3.70	0.81	3.85	0.75	3.92	0.74	3.93	0.74
	학업스트레스	2.33	0.98	2.41	1.00	2.56	1.00	2.62	1.01
	자치활동 여부	0.34	0.47	0.33	0.47	0.13	0.34	0.16	0.37
	휴대전화 중독	1.75	0.81	1.91	0.83	2.08	0.85	2.10	0.89
	봉사활동	3.38	0.93	3.35	0.90	3.52	0.88	3.52	0.83
가정 (3개)	부학력	14.13	2.33	14.13	2.33	14.13	2.33	14.13	2.33
	형제/자매 수	1.15	0.71	1.15	0.71	1.15	0.71	1.15	0.71
	부모-자녀관계	3.46	0.87	3.38	0.83	3.60	0.82	3.61	0.83
교원 (3개)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3.50	0.75	3.46	0.73	3.44	0.69	3.51	0.66
	교사 열의	4.23	0.70	4.22	0.69	4.20	0.65	4.16	0.69
	교사-학생 상호작용	3.89	0.85	3.83	0.88	3.71	0.81	3.70	0.81
학교 (2)	학급 수	30.95	11.77	30.57	11.91	23.39	8.10	22.65	8.01
	학교폭력	2.44	0.90	2.33	0.82	2.42	0.80	2.44	0.80

<표 4> 기술통계(여학생, n=1,838)

변 수	초5(2013년)		초6(2014년)		중1(2015년)		중2(2016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동체의식	3.84	0.62	3.86	0.60	3.87	0.55	3.90	0.56	
개인 (5개)	교우관계	3.90	0.79	4.02	0.74	4.04	0.69	4.07	0.69
	학업스트레스	2.42	1.00	2.57	1.00	2.80	0.94	2.88	0.94
	자치활동 여부	0.37	0.48	0.35	0.48	0.13	0.33	0.19	0.39
	휴대전화 중독	1.97	0.87	2.28	0.93	2.52	0.90	2.52	0.93
	봉사활동	3.62	0.86	3.61	0.84	3.75	0.79	3.74	0.78
가정 (3개)	부학력	14.13	2.31	14.13	2.31	14.13	2.31	14.13	2.31
	형제/자매 수	1.22	0.78	1.22	0.78	1.22	0.78	1.22	0.78
	부모-자녀관계	3.53	0.88	3.35	0.85	3.53	0.88	3.55	0.86
교원 (3개)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3.36	0.69	3.26	0.69	3.33	0.61	3.41	0.62
	교사 열의	4.24	0.67	4.22	0.67	4.13	0.65	4.07	0.69
	교사-학생 상호작용	3.88	0.87	3.79	0.86	3.58	0.79	3.53	0.78
학교 (2)	학급 수	30.93	11.94	30.60	11.86	23.24	8.22	22.55	8.02
	학교폭력	2.48	0.85	2.44	0.80	2.38	0.80	2.42	0.79

## 2. 패널분석 결과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전체학생과 남학생 및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Hausman 검정 결과에서 모두  $\chi^2$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 간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과 해석 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선택해야 함을 나타낸다. 다만, 시간불변 독립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에 의해 분석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생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근진, 이현철, 2015).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원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개인특성에서는 교우관계, 자치활동여부, 봉사활동이, 가정특성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교원특성에서는 교사의 학업성취압력, 교사의 열의,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스트레스, 휴대전화 중독, 학교폭력 정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불변 독립변수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 형제/자매 수는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우관계와 봉사활동 변수가 공동체의식에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은 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연도변수 또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동체 의식도 향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우관계와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우관계는 남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봉사활동은 여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남학생에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에게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 부모-자녀관계는 남학생에게 좀 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교사 특성에서는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남학생에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교사의 열의는 여학생에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과 관련하여 학급 수는 남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은 여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급 수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자치활동 여부, 휴대전화 중독, 봉사활동, 교사 열의, 학교 폭력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변수의 경우, 남학생의 2015년(중1)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5> 패널분석 결과(전체)

	변 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인	성별(여)	(omitted)	-0.022**
	교우관계	0.148***	0.182***
	학업스트레스	-0.013**	-0.008*
	자치활동 여부	0.028***	0.065***
	휴대전화 중독	-0.046***	-0.046***
	봉사활동	0.150***	0.207***
가정	부학력	(omitted)	0.013***
	형제/자매 수	(omitted)	-0.001
	부모-자녀관계	0.077***	0.078***
교원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0.043***	0.061***

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교사 열의	0.055***	0.071***
	교사-학생 상호작용	0.071***	0.076***
학교	학급 수	0.000	0.000
	학교폭력	-0.020***	-0.016***
연도	2014	0.043***	0.042***
	2015	0.048***	0.049***
	2016	0.065***	0.064***
	상수	1.972***	1.266***
	Number of obs	12,804	12,804
	Number of groups	3,201	3,201
	F	231.03***	-
	$\chi^2$	-	8643.19***
	R-square within	0.2522	0.2498
	R-square between	0.6359	0.6503
	R-square overall	0.4704	0.4788
	Hausman 검증	$\chi^2 = 479.24***$	

주: 1. \* p<0.1; \*\* p<0.05; \*\*\* p<0.01; 2. 연도는 2013(초5) 기준

<표 6> 패널분석 결과(성별)

변수	남학생		여학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인	교우관계	0.187***	0.220***	0.119***	0.153***
	학업스트레스	-0.019**	-0.005	-0.010	-0.012*
	자치활동 여부	0.028	0.056***	0.030**	0.073***
	휴대전화 중독	-0.042***	-0.047***	-0.050***	-0.045***
	봉사활동	0.121***	0.180***	0.174***	0.229***
가정	부학력	(omitted)	0.015***	(omitted)	0.012***
	형제/자매 수	(omitted)	0.013	(omitted)	-0.008
	부모-자녀관계	0.091***	0.093***	0.065***	0.067***
교원	교사의 학업성취 압력	0.045***	0.063***	0.038***	0.057***

변 수	남학생		여학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교사 열의	0.045***	0.060***	0.060***	0.078***
교사-학생 상호작용	0.084***	0.085***	0.061***	0.068***
학교				
학급 수	-0.002*	0.000	0.001	0.000
학교폭력	-0.009	0.000	-0.026***	-0.027***
연도				
2014	0.041***	0.040***	0.044***	0.043***
2015	0.022	0.026	0.064***	0.062***
2016	0.033*	0.035**	0.087***	0.082***
상수	1.895***	1.096***	2.048***	1.373***
Number of obs	5,452	5,452	7,352	7,352
Number of groups	1,363	1,363	1,838	1,838
F	111.91***	-	122.15***	-
$\chi^2$	-	3846.07***	-	4881.35***
R-square within	0.2777	0.2735	0.2372	0.2352
R-square between	0.6223	0.6479	0.6436	0.6552
R-square overall	0.4700	0.4838	0.4725	0.4796
Hausman 검증	$\chi^2 = 225.7***$		$\chi^2 = 264.49***$	

주: 1. \* p<0.1; \*\* p<0.05; \*\*\* p<0.01; 2. 연도는 2013(초5) 기준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정, 교원 및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차원의 특성별 변수들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바,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자치활동 및 봉사활동에 참여가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결과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업스트레스가 클수록, 휴대전화 중독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 자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학생 참여 활동의 범위와 정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자유학년제로의 확대 추진 정책은 지필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체험·참여활동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한편,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도별 기술통계값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모두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훈(2015), 김혜진(2014), 박현정 외(2015)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성훈, 2015;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연구대상의 연령대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 사회적 관계 요인에 더 영향을 받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등 성장발달의 변화가 큰 시기인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방안이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관계가 좋을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지지되는데 부모와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관계가 공동체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태준 외, 2010; 박현정 외, 2015; 강가영, 장유미, 2013).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 및 문화적 자원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즉 청소년기의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활동 경험이 가정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에, 가정배경에 제약받지 않고 학교 나아가 지역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원특성에서는 교사의 학업성취압력이 강할수록, 교사의 열의가 높을수록,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업성취압력, 교사의 열의,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지는 공통점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교사 본연의 역할이자 소명이다. 교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하고, 교사-학생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당 학생수 비율은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비율 감축을 통해 교실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특성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정도가 심할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경우,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개인특성, 가정특성뿐만 아니라 교원 및 학교의 여러 특성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긍정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긍정적 요인들은 강화시키고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최근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진로집중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생 선택형,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의 혁신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교육방향 및 체제 전환과 맥락을 같이하여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함께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경우, 분석자료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정책 등과 같은 변수를 포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정책들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교육부(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증보편**. 세종: 교육부.
- 김근진, 이현철(2015). 교사-학생관계의 변화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패널 자료분석(panel data analysis)을 사용하여. **교사교육연구**, 54(1), 59-73.
- 김성훈(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양분 외(2016). **한국교육종단연구2013(IV):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옥순(2006). 서울시 거주 중고생의 공동체 의식 조사 연구: 인터넷 이용 행태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215-234.
-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태일(2003). 행정학 분야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측정오차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37(1), 249-269.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2010).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한(2017).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남녀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미치는 효과: 다집단성장곡선모형을 활용한 성별효과분석. **시민교육연구**, 49(2), 1-25.
- 김혜진(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2012).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01-119.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영, 허원구(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31-156.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

학연구, 17(4), 157-182.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문수경(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민인식, 최필선(2013).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손상희(2005).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학급풍토와 공동체 의식 특성. **특수아동연구, 7(2)**, 1-26.

송경오, 이광현(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특성에 대한 패널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301-326.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오미섭(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우유라, 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유난숙(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3(3)**, 319-329.

이혜영(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장혜림, 정익중(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한대동, 오경희(2013). 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 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한은경, 김미강(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허승희, 이미숙(2012).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전환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인식 연구. **학습전략중재연구, 3(2)**, 39-78.

허인숙, 이정현(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9,40)**, 443-472.

Crockett, L. J., & Crouter, A. C. (2014).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Individu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social context*. Psychology Press.

Fletcher, Elder, & Mekos.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29-48.

Glanville. (1999). Political socialization of selection? adolescent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early adulthood. *Social Science Quarterly*, 80(2), 279-290.

Hart, Atkins, & Ford (1999). Urban americ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 54(3), 513-530.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issey-Bass.

Youniss, McLellan, Su & Yates. (1999).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2), 248-261.

Zaff, Malanchuk and Eccles. (2008).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or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2(1), 38-53.

\*논문접수 2018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3월 9일 / 2차 심사 2018년 6월 4일 / 게재승인 2018년 6월 14일

\* 윤수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y-sue@hanmail.net

\* 이윤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leeyoonhee@kedi.re.kr

\* 임소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only@kedi.re.kr

\* 김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eykimedu@kedi.re.kr

Abstract

## A Factor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Yoon, Soo-kyung\*\*

Lee, Yoon-hee\*\*\*

Im, So-hyun\*\*\*\*

Kim, Eun-young\*\*\*\*\*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ables in individuals, families, teachers and schools on students' sense of community. For the analysis, the 'Longitudinal Research on Korean Education 2013' data was used.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In the individual variables, th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improved as the friendship, student autonomy, and volunteer participation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family variables, the father's academic background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Teacher variables showed that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eacher's passion, and student and teacher interac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ense of community. Finally, school variable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the more negative impacts on students' sense of community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was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but also by teachers and school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educational policies that improve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ir school life.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Panel Analysis, Fixed Effect Model

---

\* This study is a revised version of presentation which was presented in the 11th KELS Conference.

\*\* First author,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